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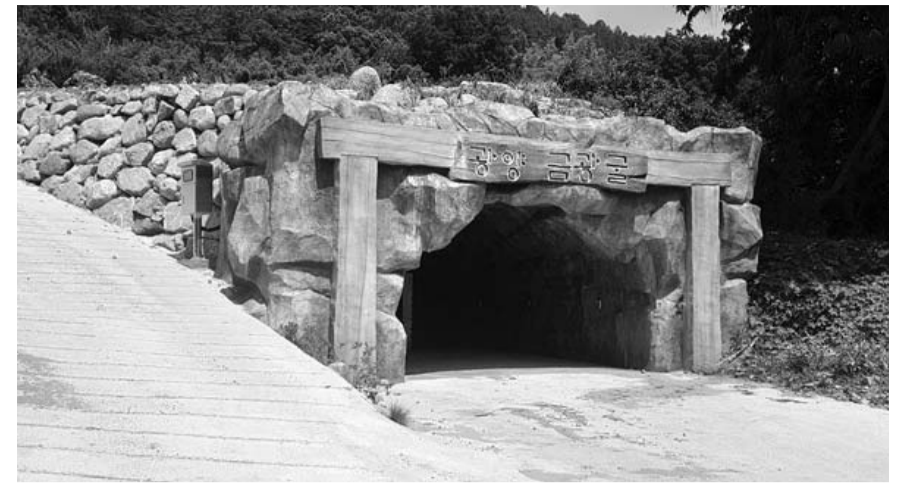


30일 125주년 기념 '동학운동의 현재와 미래' 재조명 학술연구·기념사업 성과 검토...향후 사업 추진방향 논의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학술대회가 정읍에서 열린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기념하는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30일 오후 1시30분 재단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현재와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포스터)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올해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거행된 데 발맞춘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1894년부터 현재까지의 학술연구사업 및 기념사업 성과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향후 사업 추진방향 등도 집중 조망된다. 토론회 기조강연은 역사학자인 이이화 선생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주제로 풀어 놓는다. 이어 조재근 연구교수(서강대)의 '동학

농민혁명 국외자료 현황과 활용방안', 배항섭 교수(성균관대)의 '동학농민혁명 연구현황과 미래가치', 원도연 교수(원광대)의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이 발표된다. 이후 각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원"이라며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했던 정신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광양 점동마을 금광(金鑛)굴 관광지로 구축 시, 국비 등 26억원 투입 스마트관광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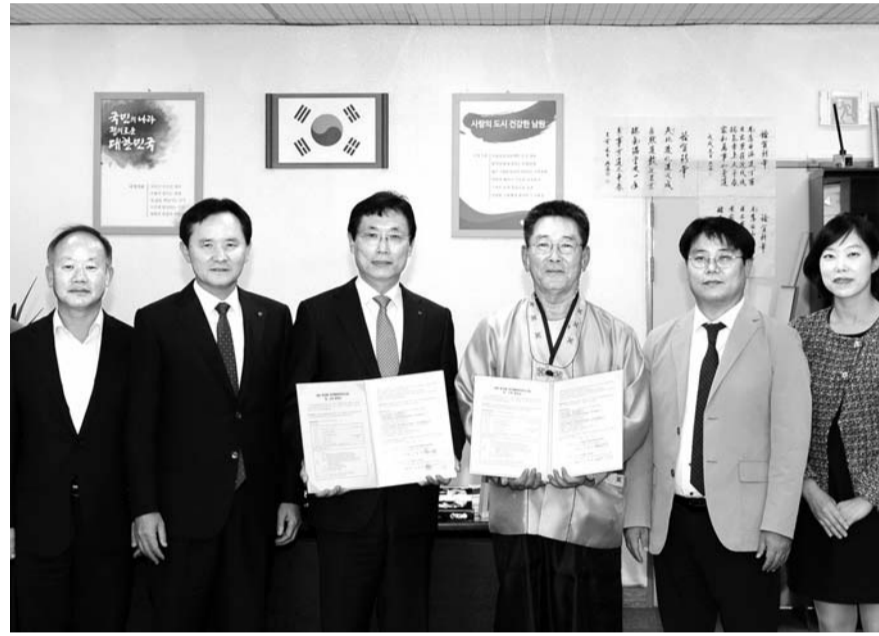
1975년 문을 닫은 광양시 광양읍 점동마을 금광(金鑛·사진)이 스마트 기술로 재현된다. 광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이 선정돼 국비와 시비 등 26억원을 들여 스마트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광양시는 2017년부터 점동마을 금광 부지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1단계로 마을 카페와 호수 둘레길, 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2단계로 금광체험시설과 호수공원 조성을 마무리했다. 광양시는 3단계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스마트 앱 콘텐츠 개발, 황금테마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국내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금 채굴 역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동굴 입구에 인조 황금 동굴 문을 만들고, 미디어 파사드와 증강현실(AR) 콘텐츠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양 광산은 1906년 초남리와 사곡리 일대에서 광맥을 발견해 채굴한 것이 시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남원시,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 본격화

원료 납품업체와 생산시설 위·수탁 계약 체결

남원시가 공들여 온 친환경화장품산업의 핵심인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이 본격화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주)수이케이(대표 김경희)와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의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수이케이는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제조업체에 원료를 납품한다.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시설은 노암산업단지 내 총 6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573㎡(475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남원·지리산권에 자생하는

자원 식물을 이용해 천연물 화장품원료를 제조한다. 화장품원료의 추출과 농축, 정제, 발효, 건조, 포장시스템을 갖췄다. 앞으로 수이케이는 이 곳을 활용해 천연물 화장품원료를 생산한다. 이를 위해 11~12월 공장등록과 시험운영을 마무리하고 내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수이케이는 내년 3월까지 유럽화장품 원료협회(EFICI) 화장품원료 GMP 인증도 진행한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이사장인 이한주 남원시장은 "남원시가 화장품 원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



시기 바란다"면서 "지역민의 인력재용을 다"고 밝혔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 고창군, 쌀 과잉생산 문제 해결 주력

논고구마·논콩 등 타작물재배 우수단지 찾아 의견 수렴

고창군이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논 타작물재배(논고구마 15ha, 논콩 53ha) 우수단지(신림면 자포리, 가평리)를 찾았다. 이들은 논고구마와 논콩 수확 현장을 확인하며 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민들은 논고구마 생산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며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논 타작물재배'는 벼 대신 다른 소득작

물을 키워 쌀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펼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조사료와 쌀 이외 식량작물 등의 자급율을 확보해 쌀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 서재필 대표는 지역 19개 농가와 함께 15ha의 대단위 면적에서 논고구마를 계약 재배하고 있다. 한결영농조합법인 박종대 대표도 57개 농가와 함께 53ha의 논콩을 신림면 가평리 전 지역의 논에서 계약 재배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정부정책 방향과 하나 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하



지한 23일 유기상(가운데 오른쪽) 고창군수가 신림면 자포리 논 타작물재배(논고구마) 수확 현장을 찾아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다"며 "농업인 모두가 다함께 잘 살 수 있을 농업정책을 펼쳐 농생명식품 수도 고창을 만들기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땅끝 해남서 '가을 맛의 향연' 펼쳐진다

'제1회 미남축제' 31일 개막...지역특산물 활용 음식 총출동

땅끝해남에서 올 가을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해남군은 31일부터 11월3일까지 나흘간 두륜산 대흥사 일원에서 '제1회 해남미남(味南) 축제'를 개최한다. '내추럴 푸드의 본향' 땅끝해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국 최대 농어업군인 해남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해남특산물을 활용한 마스터 셰프 경연대회로 해남특미요리 경연대회가 열린다. 또 궁중음식과 중기음식, 사찰음식 등 해남의 전통음식 명인 6명이 참여해 해남 음식 특별전을 갖는다. 2019인본 닭장떡국 시식 행사와 읍면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1촌1식 음식점도 운영한다. 수확철을 맞은 고구마 담아가기, 해남 배추를 이용한 김장담그기, 해남 3대 명차 체험, 막걸리 바 운영 등 해남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체험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개막식은 다음 달 1일 오후 5시부터 열리며, 2020 해남방문의 해 선포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순창군, 토종발효미생물 활용 '아로니아 청국장 환' 개발

토종 발효 미생물과 슈퍼푸드인 아로니아를 활용한 '아로니아 청국장 환'이 개발됐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아로니아 청국장 환을 개발해 식품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청국장 환은 제14회 순창장류축제 기간에 첫선을 보였다. 토종 청국장에 아로니아 분말을 7% 함유한 이 제품은 청국장 냄새를 줄이고 먹기 편하면서 변비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크다고 순창군은 전했다. 순창군은 로컬푸드 매장과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